

Transport Valuechain Daily

RA 오정하

2022. 3. 4 (금)

운송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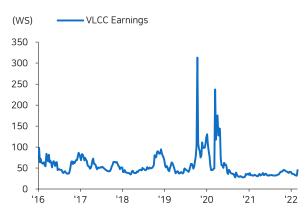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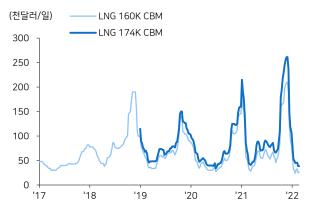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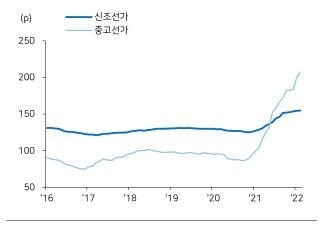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294.6p(+4.0p DoD) 98.0p(+0.1p DoD) 항공시장 지표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www.imeritz.com Meritz Research 1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yundai Heavy Industries wins \$1.3bn newbuild contracts as order surge rolls on

현대중공업이 유럽선주로부터 LNG운반선 3척, 중남미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13억달러수 준으로 보도됨.LNG선박은 20,000CBM급으로 2025년말 인도될 예정임. 컨테이너선은 8,000TEU급으로 2024년말까지 인도될 예정 임.(Tradewinds)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합의안 가결…"국민께 사과"

CJ대한통운 노조가 파업을 종료하고 3월 7일 업무를 재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됨. 3일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도출한 잠정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90.6%, 찬성률 90.4%로 합의문이 가결됨. 택배노조는 5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계획임.(연합뉴스)

우크라 사태에 러시아행 배 멈췄다…HMM도 극동 서비스 중단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수위가 높아지며 해운사들의 극동항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됨. 글로벌 1, 2위 해운사 MSC, Maersk가 러시아 항구 해운서비스를 멈춘 가운데, HMM도 극동항로 선적 예약 서비스 중단에 나섰다고 보도됨. 3월 3일부로 HMM는 3개 항로 물류 서비스를 정지시킴.(데일리안)

Capacity crunch: Newbuildings will not move dial before 2023

Alphaliner에 따르면 2023년까지는 컨테이너선 인도량이 부족해 공급부족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도됨. 급격하게 상 승한 선가에도 선주들은 컨테이너선을 계속 발주했지만, 대다수 선박은 2023, 2024년부터 운항될 예정임. 2023-24년 240만TEU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됨. 2008년 65% 수준에 비하면 낮지만, 현재 전세계 수주잔고-선대 비율이 25%까지 상승했다고 언급함. 당시 선대 규모보다 두 배 증가한 점을 고려해야함. (Tradewinds)

연료비 계속 상승 행진

유가가 배럴당 113달러를 넘어서자 연료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Marine Bunker Exchange에 따르면 초저황유 (VLSFO)가격은 톤당 795달러로 하루만에 10% 가까이 상승함. 고유황유는 톤당 616달러로 2.65% 하락함. VLSFO와 가격 스프레드가 커지는 것은 스크러버 탑재 선박 소유주에게는 희소식으로 보도됨. Clarksons Platou Securities는 스크러버 탑재 VLCC는 하루 10,300달러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추산함. (선박뉴스)

Vietnam's Block B project on track for sanction this year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Block B프로젝트의 마지막 투자결정이 2022년 4분기 초, 4년만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됨. 베트남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이지만, COVID-19와 낮은 유가로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됨. 경유 20,000bpd 이상을 생산할 해상플랫폼 EPCI 입찰에는 현대중공업이나 McDermott가 참여할 것으로 언급됨. (Upstream)